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강경노선 예고

선출 기구 전문가회의 공식 발표...“적 위협에도 결정 주저하지 않아”

IRGC·안보수장, 즉각 지지선언...전쟁 장기화 가능성 국제유가 폭등

이란 전문가회의가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8일(현지시간) 선출했다.

하메네이 후계자 공식 발표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에 하메네이가 숨진 지 8일 만이다.

AP·AFP·로이터통신 등을 종합하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임시 회의에서 존경하는 전문가회의 대표들의 결정적인 투표를 바탕으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신성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제3대 지도자로 선출 및 소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회의는 “긴박한 전쟁 상황과 적들의 직접적인 위협에도 한 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신중하고 포괄적인 심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란 국영 TV는 모즈타바가 “압도적인 찬성표”로 선출됐다는 성명을 낭독하며 국민들에게

그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테헤란 도심에서 시민들이 새 최고지도자 선출을 축하하는 모습을 방영했다.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는 이제 이란 국정 전반에 걸쳐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다.

군부 실세인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총사령관직을 수행하며, 본인 결단에 따라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에 대한 통제권도 갖는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직후 새 지도자에 충성을 바치겠다고 ‘원전한 복종’을 선언했다.

이란 안보 수장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새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촉구하며 모즈타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는 텔레그램에 “축복받은 이슬람 혁명 지도자”라는 문구와 함께 모즈타바의 초상화를 공유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AFP=연합뉴스

이란의 주요 대리 세력으로 꼽히는 예멘 후티 반군도 텔레그램에 발표한 성명에서 모즈타바의 선출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이란의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사한 이후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88인 전문가회의가 소집돼 후계 구도를 논의해왔다.

1969년생으로 현재 56세인 모즈타바는 하메네

이의 여섯 자녀 중 둘째 아들로,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다.

그는 부친이 혁명 운동가로 성장하고 권력을 쥐는 과정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보았으며, 혁명수비대 복무와 신학교 수학 등을 거치면서 인맥을 쌓았다.

공직을 맡은 적도 없고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으나,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해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다만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세습 통치를 종식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에서 최고지도자를 세습한 것은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하메네이는 2024년 이란 전문가회의가 최고지도자 승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을 때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즈타바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는 보도는 지난 3일부터 나왔으나,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에 하메네이 후계자 최종 결정과 발표를 보인 우려로 미뤄왔다.

미국은 아직 이란의 최고지도자 선출에 입장

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모즈타바의 선출은 미국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예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계 구도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면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상황에서 이란은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들의 지지를 받은 모즈타바를 선택하면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강경파가 여전히 권력을 장악 중이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강경한 저항을 이어가고, 미국과 이스라엘도 대이란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어 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진다.

밤사이 공습이 이어지고 하메네이 승계자 발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이날 국제유가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이날 오전 7시께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 /연합뉴스



공격받은 이란 석유저장시설 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북서쪽에 위치한 석유 저장 탱크가 이스라엘-미국 합동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후, 탱크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UPI=연합뉴스

美캔자스시티 공항, 폭탄위협...3시간 만에 운영재개

미국 캔자스시티 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위협으로 항공기 운항이 약 3시간 동안 중단됐다.

캔자스시티 항공국은 8일(현지시간) 오전 11시15분께 공항에 폭발물 위협이 접수돼 즉각 터미널 대피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A P통신과 지역 일간 캔자스시티 스타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과 직원 등 약 2천명이 공항

터미널을 떠나 활주도로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공항 측은 이날 오후 2시에 공항 운영을 재개했다.

선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캔자스시티공항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현재 해결됐으며 정상 운영이 재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과 충돌’ 아프간 “장기전 준비 돼 있어”

아프간 국방장관 “파키스탄, 약한

아프간 정권 세위 압박하길 원해”

아프가니스탄이 열흘 넘게 무력 충돌 중인 파키스탄과 대항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장기전을 치를 준비가 돼있다고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EFE 통신 등에 따르면 모하마드 야쿠브 무자히드 아프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자국 매체 톨루뉴스와 인터뷰에서 “탈레반 지도부는 파키스탄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며 10년이 걸리더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프간 수도) 카불이 공격받으면(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도 공격받을 것”이라며 “카불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고도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무자히드 장관은 또 양국 국경선인 ‘듀랜드 라인’을 언급하면서 파키스탄이 가상의 국경선을 인정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천600km 구간에 달하는 듀랜드 라인은 1888년 영국령 인도와 아프간 군주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그려진 국경이다.

파키스탄은 듀랜드 라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경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아프간 정부나 현재 탈레반 정권은 당시 협정이 강압으로 체결돼 항구적인 국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양국은 탈레반이 2021년 미국 철수 후 아프간을 재장악한 이후에도 국경 일대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빚었다.

무자히드 장관은 파키스탄이 자국에 경제력을 의존하고 군사력과 약한 아프간 정권을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아프간에 약한 정부를 세워 원할 때마다 의존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자국민들에게 단결을 촉구했다.

다만 무자히드 장관은 카타르,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중재하던 휴전 협상에 파키스탄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프간 국민과 정권은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적대감을 원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무력 충돌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양국 군인들의 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

아타울라 타라르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지금까지 아프간 군인 사망자 수가 527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755명이라고 밝혔으며,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파키스탄 군인 250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中, 대만해협에 대형 구축함 실전배치

중국 인민해방군이 1만급 055형 대형 구축함 2척을 대만해협 담양 전구에 실전배치 한 사실을 공개하며 해군력을 과시했다.

중국 중앙TV(CCTV) 대표 뉴스 프로그램 ‘신원론포’는 8일 저녁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무장경찰 대표단 회의 참석 소식을 전하며 뱃머리 선박 번호가 각각 ‘109’와 ‘110’인 대형 구축함이 다른 함정들과 합동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구축함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구축함의 명칭이 각각 동관함과 안칭함이라고 전했다.

2척의 구축함은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이 보유한 055형 구축함은 기존 8척에서 10척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